

첫번째 이야기

# 감기 초기에 잡는 대응제약 ‘씨콜드’



씨콜드 정은 이러한 증상 완화 외에도 감기를 앓는 기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 감기 초기에 비타민C를 복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권장하고 있다.

또한 비타민C와 감기약 성분을 분리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산화되기 쉬운 비타민C의 안정성을 증가시켜 약효가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씨콜드는 주간용과 야간용으로 선택 복용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주간용에 들어있는 ‘무수카페인’은 감기약으로 인한 졸음을 완화시키고 아세트아미노펜과의 상승작용으로 빠른 해열진통에 효과가 있다. 특히 주간·야간용이 함께 포장되어 수험생, 직장인 등 낮에 집중적으로 공부·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좋다.

이러한 다양한 특성으로 현재 타 제약사들이 씨콜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주간·야간용을 함께 출시하는 제약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응제약 김주한 홍보부장은 “지난해 씨콜드 출시 이후 꾸준한 매출 상승으로 올해 50억원 매출을 달성, 감기약 시장의 넘버 3 브랜드로 진입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씨콜드 정은 종합감기약 씨콜드 정, 코감기약 씨콜드 노즈 정, 기침감기약 씨콜드 코프 정 등 3가지 종류가 발매돼 증상에 따라 선택해 복용할 수 있다.

비타민C와 감기의 연관성은 지난 1970년 폴링 박사의 저서 ‘비타민C와 감기’를 통해 알려졌다.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폴링 박사는 ‘비타민C 신화’의 창조자로서 하루 1~2g의 비타민C를 섭취하면 감기를 45%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암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일 비타민C 권장량은 70mg으로 흡연자는 이보다 많은 105mg을 권고하고 있으나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비타민C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권고량보다 많이 섭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백혈구 속의 비타민C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

대응제약의 감기약 ‘씨콜드 정’(12정, 주간용 8정·야간용 4정)은 감기 개선 효과가 우수한 비타민C 500mg을 함유한 증상별 맞춤형 감기약이다. 씨콜드 정은 감기 증상을 제거해 주는 성분과 비타민 1일 500mg을 함유해 바이러스를 약화시키고 면역기능을 강화시켜 감기 증상을 신속히 개선해 준다. 비타민C 500mg을 과일로 섭취한다면 사과 35개, 귤 9개, 레몬 7개를 먹어야 가능한 양이다.

#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



인간에게 통증은 질환을 알리는 가장 빠른 사인. 그중에서도 뼈·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평생 인간의 삶과 동행할 정도로 친숙한 증상이다. 이 같은 관절통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는 없지만 대증요법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이 소위 '붙이는 파스'로 불리는 외용소염진통제다. 종류는 크게 플라스타(경고제)와 카타플라스마(습포제)로 나뉜다. 경고제는 종이 또는 헝겊·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에 약물을 입혀 테이프처럼 붙이는 것. 후끈하고, 싸한 청량감을 주는 약물효과로 통증을 잊게 하는 효과가 있다.

초기 제품엔 피부발진이나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따랐다. 피부 접촉을 돕는 용매제의 피부 자극성이 강했기 때문. 이런 단점을 보완한 것이 카타플라스마로 제품에 수분 함유량을 높여 피부 부작용을 줄였다. 따라서 건조한 피부에 붙여도 촉촉한 느낌이 들고, 자극이 적다. 초기 파스류에서 일보 진보한 것이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를 표방하고 나온 제품들이다. 증상 완화가 아닌 치료 개념으로 개발된 것.

대표적인 제품이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SK케미칼의 트라스트, 제일약품의 케펜텍이다. 이들 시장 규모는 연 1000억원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종래 파스류에 들어가는 성분은 소염 진통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붙이는 관절염 치료제는 소염 진통 효과에 관절염 치료 성분을 피부를 통해 흡수도록 고안했다. 먹는 관절염 치료제로 위장장애 등 불편함을 겪었던 소비자에게 새로운 약물전달방법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이다.

국내에 첫 선을 보인 것은 1994년 케토톱이다.

이어 96년 트라스

트가 후발주자로 뛰어들었고 근소한 차이로 1, 2위를 다투고 있다. SK케미칼의 트라스트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중 가장 강력한 항염효과를 나타내는 피록시카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일시적인 효과를 보이는 파스류와는 달리 48시간 지속적인 약효를 내는 것도 특징이다.

제일약품의 케펜텍은 최고 혈중농도 160ng, 최고혈중농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9시간으로 우수한 약물 피부 흡수도를 자랑한다. 땀이나 수분 배출이 원활하고, 샤워 후에도 잘 떨어지지 않도록 특수공법을 사용했다. 보령제약의 맨담 케토프로스타는 약물의 반감기가 짧고, 분자량이 작아 피부를 통한 약물전달력이 우수하다. 부직포에 통기성과 수분 배출 특성도 있다. 이 밖에 녹십자의 제놀 탑, 동화약품의 카트펜원 플라스타 등이 있다. 제품의 특성과 특징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선택할 때는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의 증상을 충분히 설명하고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 / 파이낸셜 뉴스 이성재 기자,  
중앙일보 고종관 기자